

35 개국 특파원의 지구촌 생생 리포트

60억 명이 공존하는 지구에서는 시시각각 다종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에는 이 역만리까지 알려지는 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부터 멀리는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35개국 46개 지역에 상주하는 특파원과 통신원 60여 명의 광범위한 해외 취재망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구촌을 누빈 특파원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Australia



◀ 캔버라 가을 축제 오세요

호주 시드니 시내 마틴 플레이스에서 캔버라의 다채로운 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는 도로와 광장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돼 있는 계획 도시이다. **시드니** 이경옥 특파원



Italy

▲ 로마 콜로세움 올 연말 '미용성형' 착수

이탈리아 로마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원형경기장(콜로세움)이 올 연말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영구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대대적인 '미용성형' 수술에 들어간다. 지아니 알레미노 로마 시장은 2천 년 된 콜로세움의 지저분하고 불안한 상태가 늘 고민거리였다면서 이 건물이 수십 년 묵은 때를 벗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3천㎡에 달하는 외벽을 청소하고 복원하는 데는 약 2천만 유로가 들고, 기간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세움은 서기 80년 티투스 황제 때 완공됐다. **제네바** 맹찬형 특파원



Macau ◀ 올해도 전 주민에게 현금 보너스

카지노 업계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마카오 정부가 올해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에 가까운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마카오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도 '파이젠' 이라 불리는 현금 보너스를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호세 코우틴호 입법회 의원은 "현금 보너스는 마카오 주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제" 라고 밝혔다. **홍콩** 정재용 특파원



Japan

◀ 유바리, 영화제는 계속된다

한때 판타스틱 영화제의 성지로 여겨지던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인 유바리(夕張) 시가 부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0년 사이 인구가 10%로 줄어들고, 시의 재정이 붕괴돼 '망한 도시'로 알려진 유바리에서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영화제가 개최됐다. 시민들의 주도로 펼쳐진 이번 영화제에서는 주민들과 스타 배우, 신인 감독, 영화 팬이 함께 어울리는 '설상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그 결과 규모는 작아졌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영화제라는 장점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바리 김병규 특파원



Chile

◀ 태평양 연안 쓰나미로 초도화

2월 27일 일어난 규모 8.8의 강진으로 칠레 태평양 연안 도시들이 초도화됐다.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인구 20만 명의 콘셉시온은 물론 콘스티투시온, 트린체라, 일로카 등 태평양 연안 도시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다. 특히 바닷가에 접한 가옥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조리 파괴됐다. 거센 파도에 밀려 물으로 올라와 가옥을 덮친 70t 선박이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쓰나미 피해는 콘스티투시온뿐만 아니라 칠란, 푸투 등 칠레 남부 대부분의 태평양 해안도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티투시온** 김재순 특파원



Thailand

◀ 방콕 거리 '붉은 옷 물결'

태국 방콕 시내 랏차담년 거리가 3월 14일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대인 '레드 셔츠(Red Shirts)'로 완전히 뒤덮였다.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지지자들인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 회원 10만여 명은 피약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랏차담년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현 정부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경찰과 군인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활동을 펼쳤지만 시위대와 군경이 모두 '비폭력 집회'를 주장해 양측 간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방콕 현영복 특파원